

# 당선작 작품집



Love Your Self



Love  
Your  
Self



Love Your Self

2011 생명사랑 글·그림 공모전

# 당선작 작품집



Love yourself 2011 생명사랑 글, 그림 공모전은 지역사회 내 자살 문제 및 자살예방에 대한 인식을 확산 시키고, 청소년들이 생명의 존엄성을 깨닫고 실천하는 건강한 개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개최되었다.



# Contents

8 추진개요 및 입상자

10 심사후기

12 글 당선작

23 그림 당선작

## Love Your Self



2011

생명사랑 글 · 그림 공모전



### Love yourself 2011 생명사랑 글·그림 공모전

발행일 : 2011년 7월 1일

발행인 : 안병은

발행처 : 수원시자살예방센터 II www.csp.or.kr II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134-3(3층) II Tel. 031-228-3279

디자인 · 인쇄 : 안지윤 · 명조기획 (031-257-8173)

\*\*\*\* 이 작품집의 저작권은 수원시자살예방센터에 있습니다.



### 1. 개최목적

지역사회 내 자살문제 및 자살예방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청소년들이 생명의 존엄성을 깨닫고 실천하는 건강한 개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2011 생명사랑 글그림 공모전” 을 개최한다.

### 2. 추진개요

- 주 최: 수원시
- 주 관: 수원시자살예방센터
- 후 원: (주)우리동네
- 참가대상: 수원관내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심사위원: 전세훈 수원시권선구보건소장  
이영문 경기도광역정신보건센터장  
양훈도 SBN프로덕션 본부장  
홍창기 권선고등학교 미술교사  
전진희 매원고등학교 국어교사
- 공모기간: 2011년 3월 21일 ~ 4월 15일
- 심 사: 1차 2011년 4월25일, 2차 2011년 4월28일
- 당선발표: 2011년 5월13일
- 당 선작: 글 8점, 그림 8점
- 시 상: 2011년7월14일 13시~15시 권선구보건소 보건교육실
- 전 시: 2011년7월15일~21일 수원시청로비

### 3. 주제

자 살 예 방 / 생 명 사 랑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고 실천하는 내용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사랑하자는 내용  
자살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내용  
자살예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홍보하는 내용

### 4. 작품규격

- 글 : 시, 표어, 감상문, 수필, 편지와 같이 글로 자유롭게 표현 (10point A4 1장)
- 그림: 카툰, 캐릭터, 포스터, 풍경화와 같이 그림으로 자유롭게 표현 (4절 쉐트지)

### 5. 입상자 명단

구 분	글	그림
대 상 [수원시장상]	세류중 2-1 강승인	산남중 3-3 지현영
최우수상 [(주)우리동네]	상촌중 2-2 강민지	고색중 3-3 임정은
우 수 상 [수원시자살예방센터장상]	세류중 2-4 김이지	영신중 3-4 채유나
장 려 상	천천중 1-8 하예진 매현중 1-2곽정원 상촌중 2-3 문현수 산남중 3-1 한승용 매현중 1-10 강태연	동수원 3-6 박세희 권선중 1-7 이경아 호매실 3-7 오윤정 매현중 1-8 김정희 수일여중 1-1 정유진





### 전세훈(수원시 권선구 보건소장)

포스터, 만화등 다양성은 평가할만 하지만, 어법, 영어, 띄어쓰기 등이 부족합니다. 앞으로는 질적 향상을 위한 홍보가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영문(경기도 광역정신보건센터장)

역대 표어전 보다는 한결 나아진 내용의 글들이 공모되었다고 판단합니다. 학년의 구분에 따른 평을 하였고, 교훈, 내용마다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표현한 글에 관심이 있습니다. 모든 글은 진솔함과 진정성에서 시작되고 끝맺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Love Yourself.

### 양훈도(SBN프로덕션 본부장)

삶의 지평만 바라보기도 벅찬나이에 죽음을 고민 하도록 하는 사회...그래도 올해는 응모작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중학생의 시선으로 삶과 죽음을 고민한 흔적이 녹록치 않습니다. 특히 수기 형식의 글 가운데 눈에 띄는 글이 여러편 있었습니다. 솔직한 고백, 용기있는 직시가 돋보입니다. 다만,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과 생경한 표현이 일부 눈에 띄지만 진정성을 높이 사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역시 간결한 글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해 대상작으로 결정했습니다.

### 홍창기(권선고등학교 미술교사)

'포스터'공모에서 '그림'공모 분야로 범위가 확대되어 만화와 캐릭터 부문이 등장하게 되어 다양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전체적인 작품에서 아쉽게 느껴지는 것은 화면의 구성에서 강조되는 부분(전달하고자 하는)을 부각시키는 기법이 다소 부족하게 느껴졌습니다.'카툰'처럼 내용이 응축된 한 컷짜리 작품을 기대하여 봅니다.

### 전진희(매원고등학교 국어교사)

표어뿐만 아니라 2011년에는 글을 새롭게 공모함으로써 작품의 다양화 측면에서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표어에서는 예년과 달리 언어의 리듬감과 대구 형식을 살려 표현한 작품이 많아서 좋았습니다. 시 경우에는 중학생이 쓴 작품으로는 수준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학생의 진솔하고도, 참신한 내용이 돋보였습니다. 수필 형식의 작품들 역시 다양한 주제로 접근한 것이 최근 학생들이 '자살'에 대한 인식을 심도있게 고민한 흔적이라고 여겨집니다.



2011년 4월 28일  
Love Yourself 2011생명사랑 글·그림 공모전 심사위원회

Love Your Self

2011 생명사랑 글·그림 공모전

# 당선작

글 8점



Love Your Self

2011 생명사랑 글·그림 공모전

그림  
공모전



대사  
의

## 마음의 청진기

우리는 병이 들면 의사를 찾아가입니다.  
의사는 청진기로 우리의 병을 진단합니다.  
진단이 끝나면 의사는 병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낫길 바라며 배웅합니다.  
우리는 의사같이 청진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몸이 아닌 마음까지 들을 수 있는 청진기예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 할 수 있는  
마음의 청진기를 가져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약보다 마음의 청진기입니다.

세류중 2-1

강승인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함으로써 마음이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세상으로 나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상처를 가지고 있기에 대화를 할 때 알게모르게 상처주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생각하고 말한다면 병이 나을 수 있지 않을까요?





글부분



# 최우수상

## 지금 나는..

지금 나는 화성행궁 잔디밭 한복판에서 주저앉아 흔들리는 벚꽃나무를 보며 이글을 쓰고 있다. 땅바닥에서 휘갈겨 쓰느라 글씨가 엉망이지만 그래도 생각하기에는 딱 좋은 장소인 것 같다. '옛날의 나' 를 말이다. 제목은 분명히 '지금 나는..' 이라는 제목이지만 그건 차차 이야기가 나올 것이므로 일단 예전의 내 모습을 생각하며 이글을 쓴다.

예전의 나는 굉장한 말썽꾸러기였다. 알 수 없는 이유로 개에게 시비를 걸다 물려죽을 뻔하기도 하고 쓸데없이 자존심이 썩어 빠하면 다른 사람들과 싸우기 일쑤였다. 또 덤벼 거리고 성질도 급해 허구한 날 넘어진 상처로 온몸이 얼룩덜룩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변했다. 나는 점점 어두워졌고 점차 말없고 소심한 아이로 변하게 되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다. 어려울 때 외ناق 뜰끼가 많았던 지라 아이들에게 이상한 아이로 불려던 나는 일명 왕따였다. 왕따는 아이들에게 특별한 존재가 아닌 이상한 존재다. 아무리 말썽꾸러기고 바보 같았던 나라도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었기에 나는 이상한 나를 감추려 노력했다. 그래서 내 꿈은 평범한 아이였고, 그걸 위해 성격마저 변했다. 따돌림이란 건 그들이 아니라 내가 이상해서 그런걸 정말로 잘 알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7년간 나를 괴롭혔던 지독한 따돌림은 점차 껍질을 벗게 되었다. 하지만 절대로 변하지 않았던 생각이 하나 있었다. '죽고 싶다' 나 같은 건 죽어야 세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어느 날 책에서 보았던 한 구절 '너 언제 죽을 거니?' 이런 생각은 절대로 변하지 않았다.

그러다 중학교 때 우연히 윈 심리 검사로 나는 수연시자살예방센터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을 만났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으며, 많은 것을 배웠다. 하지만 나는 아직 죽고 싶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했다. 아직도 사외하거나 멍하니 있을때 7년전의 내가 생각나 끔찍한 기분이 든다. 하지만 행복하다. '지금 나는' .. 행복하다. 또 행복해 지는 중 인 것 같다. 이 깊은 상처들 덕에 오히려 나는 많은 것을 느끼고 행복해 지고 있다. 수연시자살예방센터에서 팀 이름을 정하고 나는 팀 이름을 Hi 라고 지었다. 영어를 못한 나는 문법과 단어 따위는 생각도 하지 않은 채 Happy+ing= '행복해지는 중이다' 라는 의미로 지은 것이다. 나는 이 팀 이름이 매우 마음에 든다. 예전의 나에게도, 또 나처럼 상처와 갈등을 겪고 있을지도 모를 누군가에게도, 또 '지금의 나' 에게도 나는 Hi를 말하고 싶다. '우리는 지금 행복해지는 중' 이라고 말이다.



상촌중 2-2 강민지



예전의 나는 불행했다. 정확히 말하자면 불행해지는 중이었다. 자살을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행복과는 거리가 먼 삶이며 이 불행의 끝은 죽음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었다. 조금만 주위를 둘러보면 행복은 널려 있었고 내 불행을 붙잡아 줄 사람들은 바로 내 옆에서 미소짓고 있었다.

혹시 나처럼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을 누군가에게 알려 주고싶다. 불행의 끝은 있어도 행복의 끝은 없다. 그래서 나는 지금 행복하다는 표현보다는 행복해지는 중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싶다. 물론 항상 행복만 있는 것은 아닐것이다. 진리라는건 고통속에서 얻는법이다. 당신도 그 고통을 이겨내고 행복을 찾기를 바란다. 그리고 외쳐라 '나는 지금 행복해지는 중' 이라고...





글부분



### 우수상

#### 확분

나는 간혀있다.  
 답답하고 외로운 흡속에서  
 어두운 이곳에서 뭉부림 치며, 너를 기다린다.  
 너는 흡속을 뚫고 나를 찾아온다.  
 너는 따뜻하고 포근한 희망의 빛.  
 너로 인해 나는 한줄기의 아름다운 꽃이 되었다.

세류중 2-4

김이지



나의 개인적인 감정도 대입하며 힘들어하는 청소년들 마음도 생각하며 시를 써보았는데 막상 이렇게 당선이 되니 기쁘다.  
 힘든 모든 사람들이 시 내용처럼 한줄기의 아름다운 꽃이 되어 희망을 잃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가라는 마음으로 썼다.  
 힘든 사람에게 작은 관심이 그 사람을 살린다는 내용을 시로 담았다.

글부분



### 장려상

## 자살을 시도해 본 사람, 경험해 본 사람에게

안녕? 나는 아름다운사람지킴이 13기 하예진이야. 나는 오늘 이 편지를 쓰면서 자살예방과 생명사랑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고 이해하면서 자살과 생명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게 되었어. 자살을 시도해 본 사람들이나 자살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모두 해결방안이 자살밖에 없다고 생각해. 자살 말고도 많은 해결방안이 있는데 말이야. 가족, 친구들과 놀러가고, 대화하기 등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면 누구나 알 수 있을꺼야. 자살을 시도해 본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도 많은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우리들은 자살을 시도하거나 경험한 사람들에게 미안해하거나 사과 하기는 커녕 오히려 비웃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대다수야.

이런 우울함과 속상함을 없애기 위해 자신과 타인을 생각하고 이해하면서 사랑해주는 마음으로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알았으면 해. 나는 '해피비스데이' 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어. 하지만 요즘 들어 너무 쉽게 생명을 생각하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 자살을 예방 하려면 내가 먼저 친구에게 따뜻한 말과 눈빛으로 친절하게 대해준다면 상대방에게는 그 작은 관심이 삶의 큰 희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군가 자살하려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우리 모두 내가 먼저라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여 자살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자!

천천중 1-8

하예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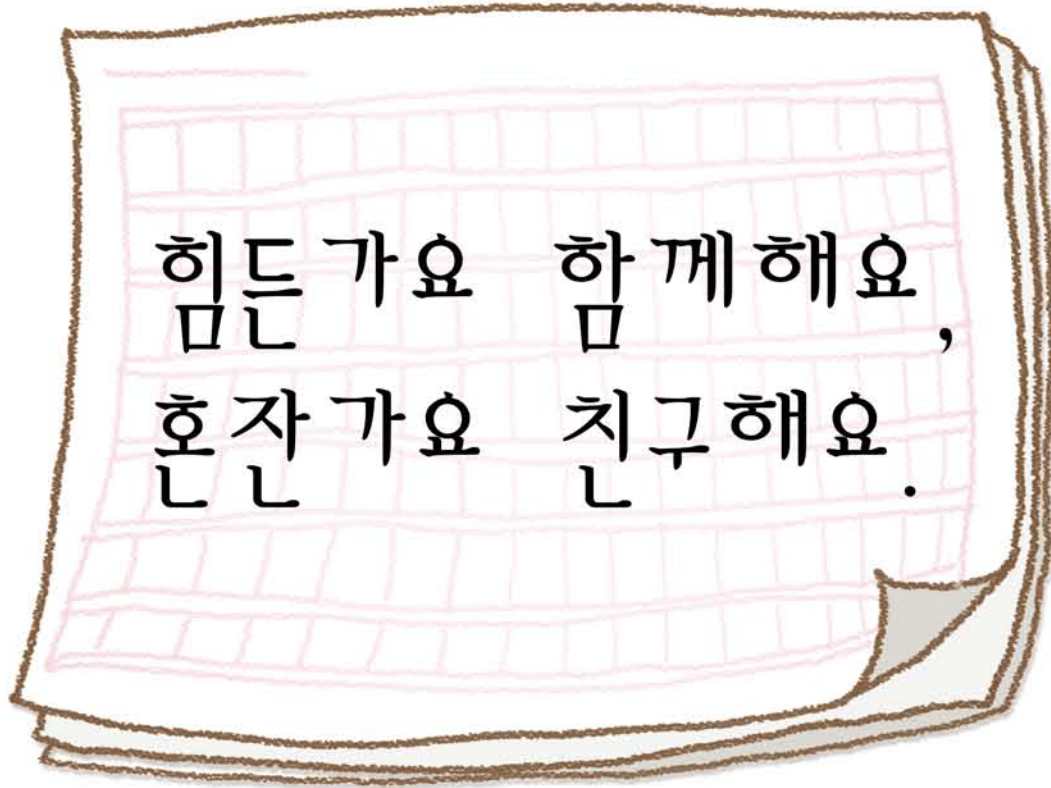
수원시자살예방센터에서 봉사를 하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다. 요즘 TV나 신문에서 자살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전해지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에 자살을 시도해본 사람이거나 경험해본 사람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편지를 쓰게 되었다. 지킴이 활동을 하면서 이런 상을 받게 되어 너무 기쁘고 즐겁게 지킴이 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겠다.



글부분



자려사



매현중 1-2

곽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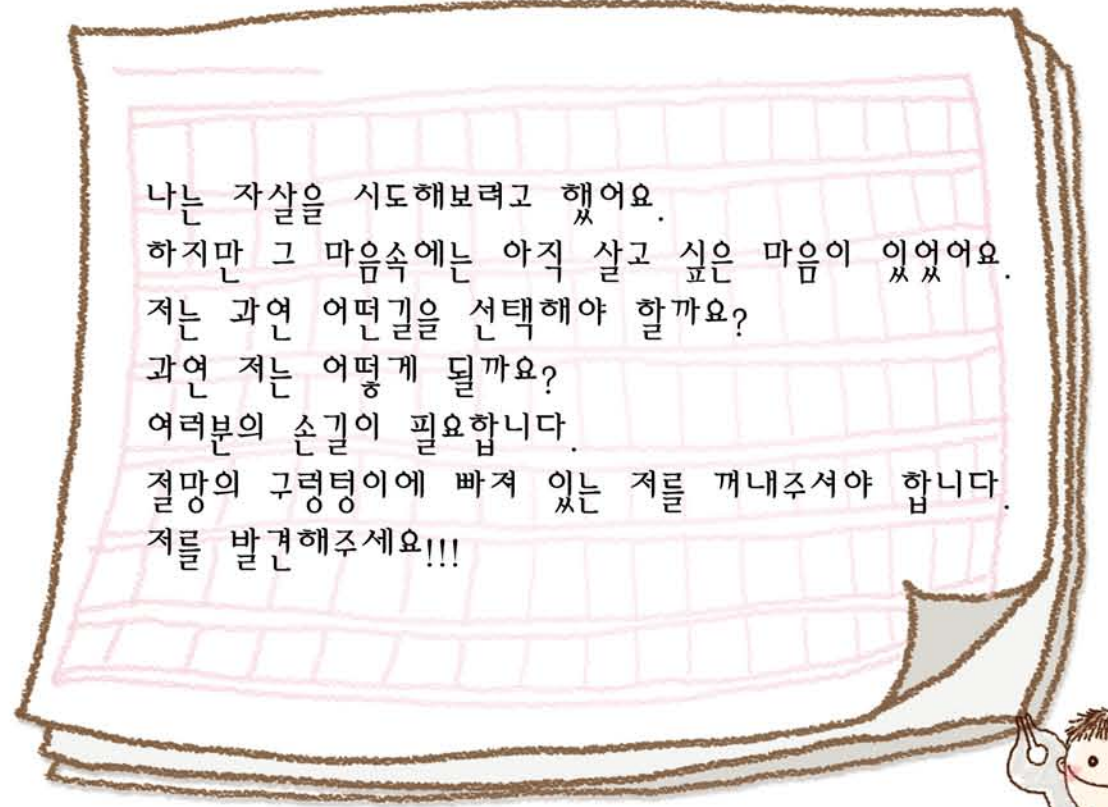


포어 공모를 학교에서 해서 냈긴 했는데 당선이 될 것 이란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해서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너무 기쁩니다. 요즘 왕따 당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관심이라고 들었습니다. 누군가 항상 나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을 주고 힘든 일이 생겼을때 진심으로 마음을 터놓고 얘기 할 친구가 있다면, 그토록 힘들고 외로운 길을 선택하진 않을것 입니다.

글부분



자려사



상촌중 2-3

문현수



전 학원에서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며 외로움을 심하게 느껴 자살을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목숨을 끊으면 더 이상 삶은 살 수 없으며 죽음은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저처럼 어딘가에서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의 외침을 발견해주기를 바라며 이 작품을 썼습니다.





자려사

별이 떨어지는 순간

나는 안다.  
그대가 별을 무척이나 그리워했음을  
그래서 별이 되려 그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자신을 사랑하던 이의  
눈물이 덜 수는 있겠지만  
곧 메마른다는 것을

나는 안다.  
별이 떨어지는 순간  
별은 옛을 그리워 한다는 것을

나는 안다.  
그대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음을  
그럼에도 그 위에 서 있음을

그 그리움 때문에  
세상에 있는 미련 때문에  
괴리를 남기며 떨어지는 것을

나는 안다.  
그대가 땅을 내려다보고 있음을  
그대 손잡아 줄 사람을 찾고 있음을

나는 안다.  
별이 떨어지는 순간  
별은 잊혀진다는 것을

별이 떨어지는 순간까지도  
그대는  
손 잡아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음을

산남중 3-1  
한승용



순식간에 잊혀지고, 순식간에 후회하는 것이 바로 자살이 아닐까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별이 떨어지는 순간'을 통해서 자살을 표현해보기로 했  
습니다. 가장 화려한 '별'이 떨어지면서 잊혀지고, 후회하는 장면을  
마치 사진처럼 찍어 시에 넣는 작업을 해 보았습니다.



자려사

놓고 봤던 삶,  
한 발짝 뒤로 가면 소중한 삶

매현중 1-10  
강태연



현재 아무리 힘들고 이 세상이 무섭게 느껴지  
더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본다면 우리의 삶에서  
행복하고 소중한 기억을 떠올릴 수 있을거예요.  
더 먼 미래를 바라보고 희망은 언제나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해요.



Love Your Self

Love Your Self

2011 생명사랑 글·그림 공모전

# 당선작

그림부분 8점





대상

‘혼자가 아니야.’



산남중 3-3  
지현영



제작년 어려운 일을 겪고 나 또한 자살하고 싶은 경험이 있었고, 나와 같은 경험으로 힘들어 하는 사람들에게 그때 내게 가장 필요했던 '괜찮아'라는 말을 해서 힘이 되어주고 싶었다. 2년째 이 공모전에서 수상을 했는데, 그래서 좀 더 감회가 색다른 것 같다. 내 그림을 보고 힘든 사람들이 용기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최우수상

‘밝은 미래를 향해 가자’



고색중 3-3  
임정은



자살을 하는 이유는 현재 살기 힘들고 괴롭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지금이 힘들다고 해서 미래까지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때문에 나는 한 소녀가 자살의 고민 속에서 다시 용기를 얻고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만화로 그렸다. 많은 사람들이 내 만화를 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림부분

### 우수상

‘되돌려 볼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지  
모릅니다.’

~~~~~

되돌려 볼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지 모릅니다



영신중 3-4

채유나



사람이 죽을때 자신의 머리 생각에는 '죽고싶다,살기싫다.'  
이런 생각만 해요.

TV안에서 일시정지 한 상태로 다시 한번 더 깊게 생각을 하고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예요.

그림부분

### 장려상

‘밝은 미래를  
향해 가자.’

~~~~~

아름다운 동행



Life is Valuable  
Life is Important

동수원 3-6

박세희



아무리 힘들고 살고싶지 않은 세상이라도 옆에서 같이 동행하며  
용기를 주는 사람이 있다면 이 세상을 사는 것은 힘든것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동행자가 되어 준다면 사는게 힘들  
어서 자살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장려상

‘웃어봐.’



권선중 1-7 이경아



우리는 늘 스트레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학원에서 공부에 시달리며 자유를 잃어가고 집단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외톨이가 되어가지요. 그런 친구들을 보며 미안했습니다. 도와줄 수 있는데 나는 무심했으니까요. 그래서 나는 친구들에게 웃음을 찾아주고 싶습니다. 우울함을 나누서 기쁨과 행복이란 마음을 더해주고 싶습니다.

그 행복과 기쁨은 내 친구들...우리의 웃음에 깃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애들아 스마일~^^"



장려상

‘우리의 사랑은 자살의 예방입니다.’



호매실 3-7 오윤정



요즘 자살을 하는 청소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자살하는 원인은 성적, 왕따, 부모님과의 갈등 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과 우정, 배려와 관심등을 나누주면 자살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이 담긴 예방주사가 밧줄을 끊는 모습을 표현하였습니다. 또한 예방주사 맞은 곳에서 희망과 기쁨이 피어나는 꽃과 나비를 표현하였습니다.





그림부분

# 장려상

## ‘포기하지 마세요.’



매현중 1-8

김정희



절벽 끝에서 위태롭게 버티고 있는 꽃 한송이 주변에 나비들이 모여 들고 있는데요, 꽃은 자살을 하려는 사람, 나비는 그런 사람을 도와주려는 사람으로 표현 해 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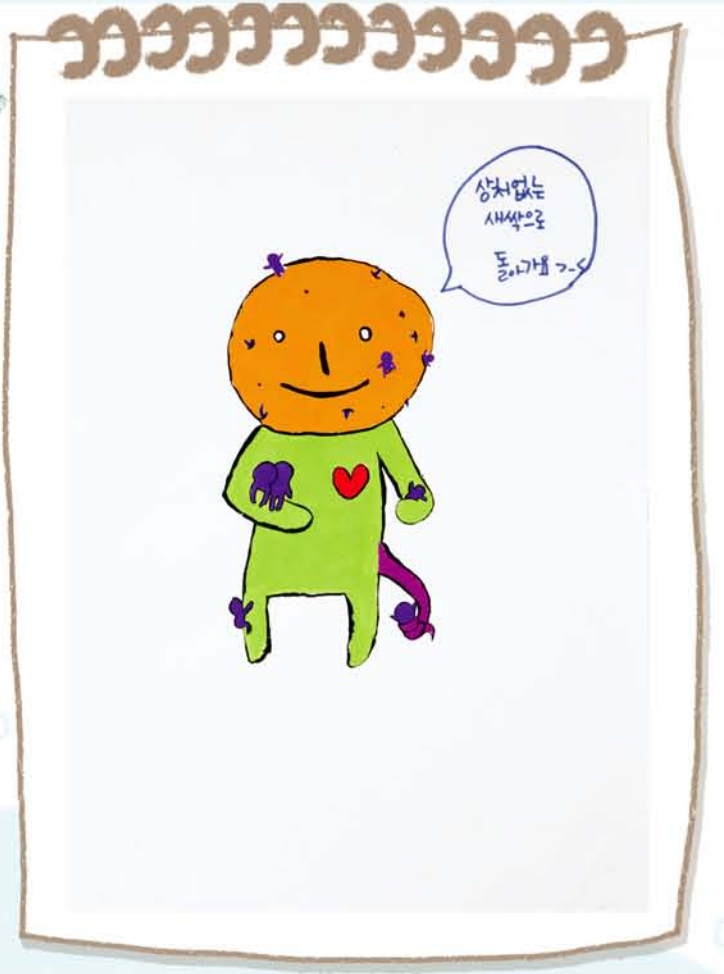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기 전에 한번 더 기다려 보라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 줄 테니 조금만 더 기다려 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살예방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림부분

# 장려상

## ‘새싹처럼.’



수일여중 1-1

정유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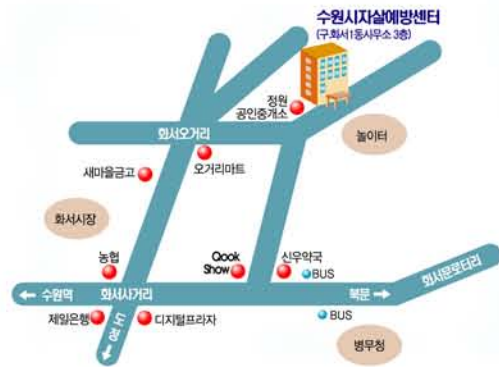


감자의 여기저기에서는 싹이 돋는데, 자살하려는 사람들의 상처에 새싹이 돋게 해주어 깨끗하게 만들어 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관심과 사랑으로 앞으로는 감자가득 새싹이 돌아났으면 좋겠어요.







수원시자살예방센터  
Suwon Centre for Suicide Prevention

442-862 경기 수원시 팔달구 화서1동 134-3(3층) Tel.031 - 228 - 3279 www.csp.or.kr

Love Your Self

